



자동차보험 영업이익 적자전환의 원인과 전망

전용식 연구위원

1998년 이후 19년 만에 907억 원의 흑자(2017년 1/4분기)를 기록한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1년 만인 2018년 1/4분기 483억 원 적자로 전환됨. 적자전환의 원인은 자동차 보험료 경쟁과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손해를 악화임. 손해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시장의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 한편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 원가 증가세가 금리상승으로 확대될 경우, 자동차보험 영업이익 적자는 과거와 같이 확대될 수 있음. 자동차보험 영업이익 적자는 자동차보험 시장의 변동성과 경쟁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보험료 변동성을 확대시켜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음. 경쟁으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보험금 원가변동과 경영안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

■ 2017년 1/4분기 907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2018년 1/4분기 483억 원 적자로 전환됨¹⁾

-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했던 1997년, 1998년 이후 19년 만의 흑자이지만 1년 만에 적자로 전환됨
 - 1997~1998년 평균 2,831억 원의 흑자에서 1999년 4,292억 원 적자를 기록한 후, 2010년 1조 5,696억 원으로 확대되었던 자동차보험 영업이익 적자는 2016년 대물보상제도 개선 등으로 2017년 266억 원의 흑자를 기록함
- 2018년 1/4분기 영업이익 적자는 계절적 요인과 장레비, 사망 위자로 인상 등에 의한 손해를 악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
 - 반면 사업비율은 18.7%로 2010년의 30.3%에 비해 크게 하락함
- 자동차 보험료 경쟁 심화로 자동차보험 보험료 규모도 전년동기에 비해 0.4% 감소함

1) 금융감독원(2018. 5. 31), 「2018년 1분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」

■ 2018년 1/4분기 자동차보험 영업이익 적자의 주요 원인은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쟁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인 것으로 보임

- 2018년 1/4분기 자동차 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1.12% 하락했으나 발생손해액은 4.4% 증가함²⁾
 - 2017년 1/4분기 자동차 보험료 증가율 1.93%, 발생손해액 증가율 7.3%에 비해 보험료 증가율은 3.05%p 하락하였고 발생손해액 증가율은 2.90%p 상승함
- 2011년 이후 평균 자동차 보험료 증가율이 0.2%인 점을 고려하면, 2018년 1/4분기 자동차 보험료 증가율 -1.12%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
- 1999년 영업이익 적자 전환 당시에도 자동차 보험료가 전년에 비해 크게 인하됨
 - 2001년 8월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이전이기 때문에 현재와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1999년 자동차 보험료는 전년 대비 6.18% 하락하였고 발생손해액은 11.9% 증가하였음
 - 1997년과 1998년 평균 영업이익 흑자는 2,831억 원인데, 자동차 보험료는 4.09% 상승하였고 발생손해액은 9.8% 감소함

〈표 1〉 자동차 보험료, 발생손해액, 영업이익 현황

(단위: %, %p, 억 원)

구분	1997~1998	1999	2000~2010	2011~2017	2017 1/4	2018 1/4
자동차보험료 증가율(A)	4.09	-6.18	3.00	0.20	1.93	-1.12
발생손해액 증가율(B)	-9.80	11.9	8.70	6.00	7.30	4.40
A - B	13.90	-28.7	-5.70	-5.80	-5.37	-5.52
영업이익	2,831	-4,292	-6,187	-6,136	907	-483

주: 기간별 평균치

자료: 한국은행, 보험통계연보

■ 손해보험산업의 성장세 둔화로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쟁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

- 2005년 이후 손해보험의 성장세를 주도했던 장기 손해보험과 당기순이익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
 - 2017년 장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.8%로 2015년 4.9%에 비해 2.1%p 하락하였고,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15년 5.2%에서 2017년 2.6%로 둔화됨
 - 2018년 1/4분기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8,809억 원으로 2017년 1/4분기 1조 2,025억 원에 비해 26.7% 감소함

2) 이하에서 자동차 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 증가율은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된 자동차 보험료와 이 지수의 증가율임

-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고 계약자들의 보험료 민감도가 크다는 점이 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료 경쟁을 심화시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임³⁾

■ 한편 발생손해액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수리비 등 보험금 원가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보험료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경우 영업이익 적자폭은 확대될 수 있음

- 자동차수리비 증가율은 금리상승세가 확대된 2017년 10월 이후 상승하고 있는데, 2017년 1/4분기 0.83%에서 2018년 1/4분기 1.52%로 상승세가 확대됨
 - 1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17년 1/4분기 1.48%에서 2018년 1/4분기 1.87%로 39bp 상승함
- 대인배상에 영향을 주는 병원검사료, 입원료 등의 물가상승세는 둔화, 혹은 하락한 반면 한방진료와 외래진료비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
-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국내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험금 원가 상승세는 확대될 수 있음(〈표 2〉 참조)
 - 금리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금리상승 전망은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함

〈표 2〉 자동차 보험료와 보험금 원가 관련 품목별 물가상승률, 금리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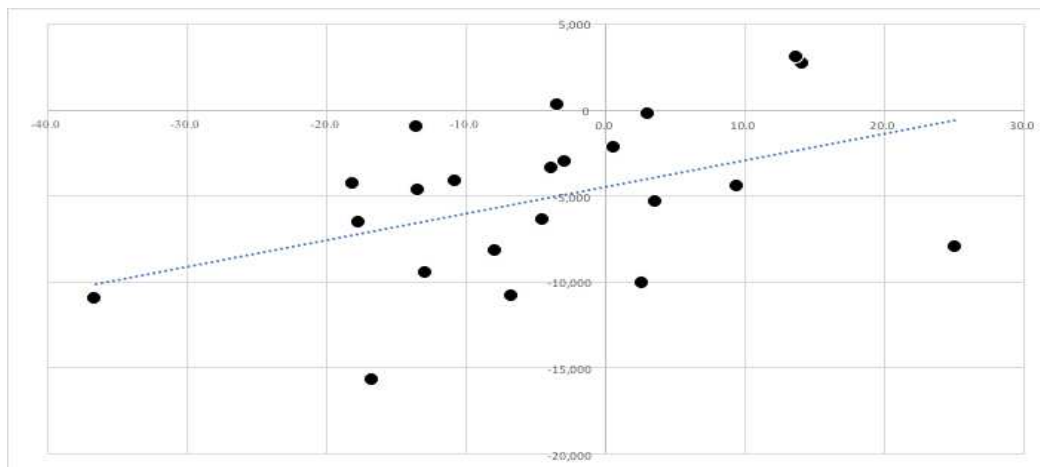
구분	2013	2014	2015	2016	2017	2017 1/4	2018 1/4
자동차보험료	-0.68	0.00	0.00	2.43	0.07	1.93	-1.12
병원검사료	1.03	1.88	2.00	2.76	3.03	3.33	-2.86
입원진료비	1.78	1.35	1.09	1.50	1.55	1.90	0.30
한방진료비	2.70	2.73	2.50	2.20	3.00	3.00	2.90
외래진료비	1.03	1.88	2.01	2.30	2.60	2.60	2.50
자동차수리비	-0.03	0.47	0.26	0.58	0.73	0.83	1.52
국고채 1년	2.66	2.44	1.70	1.43	1.54	1.48	1.87

주: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된 품목 기준임
자료: 한국은행

- 보험료 증가율이 발생손해액 증가율을 반영하여 둘 간의 차이가 좁혀질수록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, 반대로 그 격차가 커지면 영업적자는 증가할 수 있음(〈그림 1〉 참조)

3) 전용식(2014. 8), 「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보험회사 전환 가능성 분석」, 『보험금융연구』, 제25권, 제76호

〈그림 1〉 자동차보험 영업이익과 자동차보험료(좌)



■ 경쟁으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보험금 원가변동과 경영안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

- 보험금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보험료 인하는 자동차보험 시장의 변동성과 경쟁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보험료 변동성을 확대시켜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음
 - 보험료 경쟁 심화는 과거 손해율을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는 크기를 줄일 수 있어 향후 발생할 위험(손해액)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음
 - 전용식 외(2013)는 가격자유화 이후 자동차보험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래 기대손해액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크기가 작아졌고, 이러한 보험료 산정이 영업이익 적자 지속에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함⁴⁾ [kiri](#)

4) 전용식 · 채원영(2013. 3), 『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』, 보험연구원 경영보고서 참조